

곡성 '전남형 기본소득' 지역 상권에 활기

1인당 30만원 상품권 지급...대상자 97.3% 수령 전통시장·마트·주유소 등서 42억9800만원 소비

곡성군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전남형 기본소득'이 지급 한 달 만에 지역 상권 곳곳에 스며들며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급된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1인당 30만원, 곡성시정상품권)은 지급 대상자 2만5633명 중 97.3%인 2만4936명이 신청 후 지급받았다.

총 지급액 74억8000만원(12월 13일 기준) 중 42억9800만원이 사용돼 사용률 57.5%를 기록했다. 이는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절반 이상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소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집중된 모습이 다.

일반음식점이 전체 사용액의 1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유소(14.8%), 하나마트(7.0%), 편의점(5.6%), 약국(4.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비가 군 전역의 다양한 가맹점으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전체 가맹점 1359곳 가운데 61.6%에 해당하는 837개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가 이뤄져 특정 업종이나 일부 점포에 몰리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형 기본소득이 주민들이 실제

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고르게 사용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식점과 주유소는 물론 정육점, 농·수·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철물점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이뤄졌다.

전통시장의 활약도 눈에 띈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6784만원)을 비롯해 석곡전통시장, 옥곡전통시장 등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사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급 이후 단기간에 지역 내 소비가 빠르게 연결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며 "기본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보다 지역에서 순환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소비쿠폰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곡성군 전통시장의 모습.

순천 '탄소중립·RE100 실현' 선제 대응한다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지역 역량 결집”

순천시가 기후변화 선제적 행동 전략 산업단지 순천형 RE100 실현(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나선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이 수출기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E100 실현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순천일반산단, 울촌산단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순천형 전기요금제 실현, 수출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 지역전력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산업단지별 RE100 잠재력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와 입주기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종 사업안을 확정해 민간투자방식, 수입구조매분방식 등 순천형 RE100 실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한다.

전략으로 민자유치와 국비공모사업 병행 추진으로 시비부담 최소화, 한전 전기요금대비 10~20% 저렴한 요금제 실현, 에너지발전 수익 및 공공유류부지 임대료를 통한 세수 확보, 순천형전력거래소(KPX) 건립 운영을 통한 지역전력 산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업체 PPA(전력수급계약) 협약 체계, 추진협약체 구성 등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026년 민간사업자 선정 및 공모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순천형 산업 재생에너지 설치 및 2029년 순천



순천 해룡출산산업단지 전경.

전력거래소(KPX) 건립, 분산에너지특구를 지정하여 산업단지 순천형RE-100을 완성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RE100 산업단지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재생에

너지 자원 활용을 연결해 지역경제 부흥으로 귀결될 중요한 과제"라며 "순천시의 역량을 결집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미래 발전 실현' 민관 합동협약체 출범

정책제정 현안 공동 대응...전문성·현장 의견 강화

함평군이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미래 비전 사업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실행율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협약체 출범 회의'를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협약체는 전남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함평군이 행정적으로 직접 제기하기 어려운 정책·재정적 애로사항을 민간 부문에서 공론화하고 건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군은 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에 제시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상의 군수와 부서장 등 행정

위원 11명, 군의원 2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출범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간의 미래 비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가 설명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행율과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민관 합동 출범 회의를 계기로 협의체 위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라며 "협의체 활동을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며 실현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 노후 교통안전시설 개선 58개 교차로 투광등 교체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노후화된 교차로 교통안전시설을 전면 개선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 등 5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노후 투광등을 고효율 LED 투광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횡단보도 LED 투광등은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 식별을 돕고 보행자에게는 안전한 횡단 환경을 제공하는 교통안전시설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물이다.

빛가람동은 2014년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교차로와 신호시설이 대규모로 설치됐으나 상당수가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나 조도 저하와 미점등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기존 노후 투광등을 모두 철거하고 고효율 LED 기반의 신형 투광등 3997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야간 시인성과 교차로 안전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빛가람동은 주거지와 상업시설, 공공기관이 밀집돼 보행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번 교체 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 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 "교통안전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진 기자

고흥, 27홀 규모 풍양 파크골프장 준공

주민 건강 증진 기대...내년 5월 정식 개장

고흥군은 최근 풍양면에 위치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 류계동 군의회 의장, 송형근 전남도의원, 김은수 고흥군체육회장을 비롯해 지역 파크골프협회 회원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군은 남부권 풍양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동부권 포두, 북부권 괴역 등 총 3개소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풍양 파크골프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총면적 3만4545㎡ 규모의 27홀로 조성됐다. 관리동과 대기실, 화장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 3월 착공해 12월 준공했으며, 잔디 생육과 보호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풍양 파크골프장을 활용해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축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에 함께하신 지역주민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풍양 파크골프장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흥을 대표하는 새로운 체육 명소가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군은 최근 풍양면에 위치한 '풍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테이프컷팅 모습.

장흥, 선진 산림행정 평가서 역량 입증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장흥군은 올해 전남도가 실시한 산림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산림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산림행정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산림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국가 중점 과제의 주요 지표를 반영해 총 3

개 분야,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림, 임도시설 관리, 도시숲 조성·관리, 나무심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군은 올해 전남도 산물 지상진화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전남도 명품숲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산림 분야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0311@

보성, 농업인 경쟁력 강화·소득 증대

보성군은 3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2026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진흥사업은 총 6개 분야, 4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 확대 사업(3개 사업),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생산모형 보급 사업(18개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신소득 작물 발굴 확대 사업(5개 사업), (2개 사업), 차세대 농업을 이끄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10개 사업), 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7개 사업)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보성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061-850-57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접수 마감 후 현지 평가와 보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6@gwangnam.co.kr